

외국인 이주자 건강관련 연구 동향: 최근 10년간(2000-2009년) 연구에 대한 고찰

최지원*, 이현경**†, 채덕희**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간호대학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정책연구소

Trends in Health-related Research on Foreign Migrants Living in Korea: Review of Published Studies during the Past 10 Years (2000-2009)

Jiwon Choi*, Hyeonkyeong Lee**†, Duckhee Chae**

* School of Nursing,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 Nursing Polic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and trends of health-related research on foreign migrants living in Korea. **Methods:** Among 85 articles identified via PubMed and RISS and additional 7 articles by ancestry search, 28 were selected for the review. Two authors independently reviewed the articles using a literature review matrix and examined together the three aspects of the studies: research methods, research topics, and research results. **Results:** Most of the articles were published between 2005-2009, and only 3 studies used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Most were exploratory and there were 4 intervention studies: three of them examined the effect of an art therapy on acculturative stress and mental health among marriage migrant women. The lack of information on informed consent, approval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 and the validity/reliability of the translated instruments were noted. **Conclusions:** Research is needed to examine migrants' health behaviors, the prevalence of chronic illness among migrants, and the influence of acculturation on the use of health resources, health behaviors, and health status. Researchers should be aware of ethnic issues when they work with foreign migrants.

Key words: Migrants, International marriage, Health, Health behavior, Multicultural, Research trend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전세계적으로 이주자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전체인구의 3%인 2억에 다다랐고, 2050년에는 지금의 2배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Immigration [IOM], 2010). 이러한 인종과 문화적 다양성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도 1980년대 후반 이후 저임금의 외국 노동력이 대거 유입되었고(Lee, 2001),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 해결책의 일환이었던 국제결혼의 활성화로 여성결혼이주자가 대폭 증가하였다(Kim, 2007). 우리나라의 총 체류 외국인인 2009년도에 약 1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Ministry of Justice [MOJ], 2010).

이주자의 증가 추세는 우리나라 인구집단의 특성에 두드러진 변화로, 건강관련 전문가들의 실무와 연구에서의

교신저자 : 이현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전화: 02-2228-3373 Fax: 02-392-5440, E-mail: hlee39@yuhs.ac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0006684).

▪ 투고일 : 2011.07.11

▪ 수정일 : 2011.09.03

▪ 게재확정일 : 2011.09.15

시사점이 크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단일 민족을 기반으로 비교적 동질적 문화를 가진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서비스의 주요 대상자였다면, 이제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지닌 새로운 인구집단의 요구에 민감한 건강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있다. 국가의 건강형평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0)에선 다문화집단이 주요 인구집단 중의 하나로 새롭게 포함된 만큼 다문화집단의 건강 증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결혼이주여성의 생식보건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통역요원 파견 보건소수를 증가시켰고(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기본정책에 따르면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주자에 대한 건강검진, 예방접종 및 건강교육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MOJ, 2011). 또한 결혼이주 여성과 이주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와 같은 정부부처 기관과 선교 및 비영리 단체를 통한 건강관련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Jo, 2009). 그러나 이러한 인구 집단에 대한 이해와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과학적 근거 제공을 위한 연구는 아직 미약 하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 사회의 역사가 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직면하게 되는 장벽으로 인해(Derose, Bahney, Lurie, & Escarce, 2009) 건강요구가 적절히 충족되지 못하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8). 이주과정 동안 경험하는 스트레스, 낮은 건강관리 접근성 등은 이주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HO, 2008). 이주자들은 이주 초기에는 이주국 국민보다 건강 수준이 높게 나타나다가, 점차 이주국 국민과 유사한 수준으로 변화 하거나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Anikeeva et al., 2010; Cunningham et al., 2008). 결과적으로 이주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건강수준의 저하 및 이주국 국민과의 건강격차를 초래하며 지역사회와 개인의 건강 측면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 의료시스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Footracer, 2009).

이주자의 건강은 전세계 건강전문가들의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이주자의 건강 불균형을 없애고 예방 및 치료의 권리를 보장하며 이주 과정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권

고하였다(WHO, 2008). 미국의 경우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보건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와 질병관리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소수민족들의 건강불평등해소를 핵심목표로 포함시킨 부서가 설립될 만큼 다문화 집단의 건강증진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또한 건강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요인이나 문화적으로 적합한 중재 개발은 소수민족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교육 연구의 우선 연구문제로 제시된 바 있다(Ganbesica et al., 2006). 한편, 국내에서 이주자 건강을 주제로 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로, 이러한 기본 원칙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서구 국가들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들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들이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경험하는 건강문제 영향요인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건강관리체계 안에서 이주자들의 건강문제가 접근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이주자 건강을 위한 실무와 교육의 기틀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지난 10년간 국내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련 연구의 고찰은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및 교육 연구의 방향 모색을 위해 필수적인 단계일 것이다. 또한 이주자의 주요 건강문제와 취약 대상을 파악함으로써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의 우선 순위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외국인 이주자의 건강관련 연구 고찰을 통하여, 연구방법(연구설계, 연구대상, 자료수집방법)과 외국인 이주자의 건강상태와 건강행위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논문의 연구방법을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 논문의 연구주제 영역을 파악한다.

셋째, 연구대상 논문의 주요 연구결과(외국인 이주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의 특성)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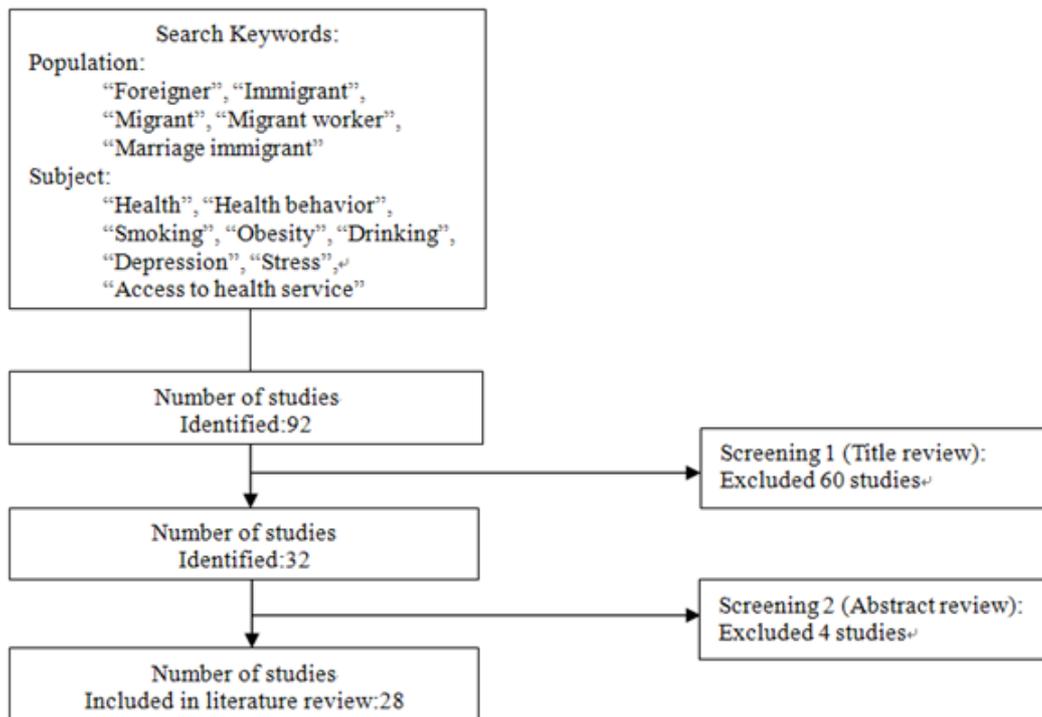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련 연구의 실태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고찰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문헌고찰 대상 논문은 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련 연구 논문으로 2000-2009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 건강행위를 주요 종속 변수로 다룬 것으로 하였다. 문헌검색은 PubMed와 RISS(한국교육학술정보원)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으며 검색에 사용된 주제는 연구대상으로는

“외국인(foreigner)”, “이주노동자/근로자(migrant worker)”, 결혼이민자(marriage immigrant)”, “이민자(immigrant)”, “이주자(migrant)”와 연구주제로 “건강(health)”, “건강행위(health behavior)”, “흡연(smoking)”, “비만(obesity)”, “음주(drinking)”, “우울(depression)”, “스트레스(stress)”, “의료이용 (access to health service)”를 조합하였다. PubMed의 검색결과 해당 논문이 전혀 없었고, RISS 문헌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하여 총 85편이 검색되었다. Ancestry search에 의해 검색된 7편을 포함한 총 92편의 논문 가운데 선정기준을 벗어난, 즉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였거나 건강상태나 건강행위를 종속 변수로 다루지 않은 60개를 제외하였다. 총 32 편의 논문 초록을 2명의 연구자가 각각 검토 후 연구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동의한 총 28편을 최종 검토하였다[Figure 1].



[Figure 1] Process of study selection for review

3. 자료 검토 기준 및 방법

자료 검토는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문헌검토 매트릭스(Literature review matrix)를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각 연구자가 논문을 1차 검토한 후 2명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2차 검토하였다. 문헌검토 매트릭스는 크게 3가지 영역, 연구논문의 일반적 특성(출판연도, 저자, 저널, 저자의 학문 영역), 연구방법(연구설계, 연구장소, 연구대상자, 표출방법, 자료수집방법), 연구주제, 연구결과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검토 방법은 빈도와 백분율의 기술통계 및 내용검토를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 논문의 일반적 특성

문헌고찰 대상 논문은 2000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약 10년 동안 국내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국내 외국인 이주자 건강관련 논문 총 28편으로, 그 중 1편은 영문으로 게재되었다. 모든 논문은 2006년부터 발표된 것이었고, 그 중 22편(78.5%)은 2008-2009년에 발표된 것이었다. 논문이 출판된 학회지의 영역을 보면 간호학 11편(39.3%), 사회복지 8편(28.6%), 가정학 2편(7.1%), 인구학 2편(7.1%), 산업의학 2편(7.1%), 심리학 1편(3.6%), 기타 2편(7.1%)이었다. 저자들의 전공영역을 비교하였을 때 다학제 연구는 총 3편(10.7%)으로 간호학과 의학, 간호학과 사회복지학, 심리학과 표현예술학이었다.

2. 연구대상 논문의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연구대상 논문 중 1편만이 질적 연구였고 나머지는 모두 양적 연구였으며 그 중 23편(85.2%)은 비실험 연구였다. 비실험 연구 논문의 4편(13.0%)은 서술적 연구였고, 19편(82.6%)은 상관 연구였다. 중재 연구는 총 4편으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 사후 설계 1편,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 설계 1편, 단일군 사전 사후 설계 2편이었다.

2)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표출방법

연구대상 지역은 서울지역 4편을 포함한 경인지역이 15편(53.6%)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 대상자의 수는 절반 이상의 논문에서 200인 미만이었다<Table 1>. 대상자의 평균연령이 30-40대인 경우는 17편(60.7%)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연령이 40대인 경우도 3편(10.7%)이었다. 검토한 논문의 17편(60.7%)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국적별로 보면 단일 국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편(7.1%)으로 베트남과 필리핀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외 연구에서 중국 국적자는 22편(78.6%)의 연구에 포함되어 있었고, 필리핀 국적자는 20편(71.4%), 일본 국적자는 11편(39.3%), 태국 국적자는 7편(25%)의 연구에 포함되었고 그 외 다른 국적 대상자를 포함한 경우는 20편(71.4%)이었다. 이주 목적별로 보면 결혼 17편(60.7%), 노동 10편(35.7%), 학업을 목적으로 한 경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methods of 28 studies

		(N=28)	
Setting*	Variables	n	%
	Seoul city & Gyeonggi province	15	53.6
	Chungcheong province	7	25.0
	Jeolla province	3	10.7
	Gangwon province	2	7.1
	Gyeongsang province	2	7.1
	National	1	3.6
	Unknown	4	14.3

	Variables	n	%
Sample size	<50	4	14.3
	50 - <200	11	39.3
	200 - <400	6	21.4
	≥ 400	7	25.0
Mean age (years)	20 - 30	8	28.6
	30 - 40	17	60.7
	≥ 40	3	10.7
Gender	Male	0	0.0
	Female	17	60.7
	Both	11	39.3
Nationality*	Chinese	22	78.6
	Filipino	20	71.4
	Vietnamese	18	64.3
	Japanese	11	39.3
	Thai	7	25.0
	Others	20	71.4
Migrant type	Marriage	17	60.7
	Work	10	35.7
	Study	1	3.6
Ethical consideration	Yes	10	35.7

* Percentages add up to more than 100 because multiple counting is allowed

우가 1편이었다. 표본추출 방법은 전수조사 1편, 눈덩이 표출 3편, 체계적 확률표출 2편을 제외한 22편(78.6 %)은 모두 편의 표출 방법이었다.

3)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이주자의 가정이나 직장을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는 기관(한국어교실, 다문화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무료진료소 등)에서 이루어졌다. 기록지를 분석한 2편의 논문과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한 1편의 논문을 제외한 총 25편(89.3%)의 논문에서는 모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가보고식 설문에 의해 자료수집을 한 경우는 9편(36.0%)이었고 개별면담은 1편, 나머지는 2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는 없었으며, 10편(35.7%)의 연구만이 사전동의 절차 후 자료수집을 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25편의 논문 중 13편(52.0%)에서 대상자의 모국어로 변환한 도구를 이용하였으나 번역 방법에 대해서 3편(12%)만

이 역번역(back- translation)을 사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3. 연구대상 논문의 연구주제 영역

연구대상 논문의 연구주제 영역을 살펴보면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건강행위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Table 2>. 총 9편(32.1%)의 논문이 신체적 건강행위 정도를 파악하였는데, 전반적인 건강수준 파악이 8편(28.5%)이었고 근골격계 질환을 주제로 한 논문이 1편(3.6%)이었다. 건강상태의 남녀별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2편(7.1%)이었으며 한국인과 비교 분석한 연구는 1편(3.6%)이었다. 정신건강 관련 주제영역의 경우 일반적인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논문 3편(10.7%), 우울 3편(10.7%), 스트레스 8편(28.5%), 직무만족도 1편(3.6%)이었다. 스트레스의 영역 중 문화적응스트레스가 6편(21.4%)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생활 1편(3.6%), 양육 1편(3.6%)이었다. 건강행위 관련 주제영역은 총 4편(14.3%)이었고 건강 증진행위에 대한 논문 3편(10.7%)와 의료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가 1편(3.6%)이었다.

<Table 2> Research area and research topics of 28 studies

(N=28)			
Research Area	Research Topics	n	%
Physical Health	General health	8	28.5
	Musculoskeletal disorders	1	3.6
Mental Health	General mental health	3	10.7
	Depression	3	10.7
	Stress	8	28.5
	Job satisfaction	1	3.6
Health Behaviors	Health Promotion Behaviors	3	10.7
	Health Care Use	1	3.6

4. 외국인 이주자의 건강상태와 건강행위

1)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상태

주관적 건강상태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절반 이상이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하였고(Jung et al., 2008; Yi, Jung, Yi, Hyun, & Kim, 2009), 대상자의 38.6%는 본국에서 보다 건강이 나빠졌다고 하였다(Jung et al., 2008). 결혼이주자를 대상으로 같은 문항을 이용하여 주관적 건강상태를 조사하였을 때, 대상자의 46.1-60.0%가 건강하다고 응답하였다(Ahn, 2008b; Kim, 2008). 다국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문제(수면장애, 소화불량 등)조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편감이 큰 것으로 지각한 반면(Kim, 2009), 남성이 여성보다 건강하지 않다고 건강상태를 지각하였다(Jung et al., 2008).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신체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각각 46.5% (Jung et al., 2008), 31.7% (Lee et al., 2009)였고, 남성의 유병률이 여성보다 2배 높이가 하면(Jung et al., 2008),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Lee et al., 2009; Jo et al., 2009). 한편 Jo (2008)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가장 빈번한 건강문제는 설사(51.0%), 감기(48.0%), 충치(19.0%)순이었다. 여성 결혼이주자의 고혈압 유병률은 15.9%였고(Ahn, 2008b), 외국인 근로자의 고혈압 유병률은 5.2%로 국내 근로자 7.6%보다 낮았다(Song, Kim, Lee, & Choi, 2008). 무료진료소를 방문한 외국인 중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질환 의심자는 각각 36.0%, 11.1%였다(Lee & Kim, 2008). 여성결혼이주자의

정신건강 수준은 보통보다 정신건강 문제를 약간 적게 경험하였다(Kweon & Park, 2007). 우울을 종속변수로 연구한 Yang과 Kim (2007)의 연구에서 우울 증상의 절단점인 CESD점수 21점을 기준하였을 때 대상자의 26.9%가 우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Cha와 Kim (2008)에 따르면 대상자들은 우울증상(슬프고 우울함, 걱정, 수면장애, 피로와 고단함, 희망 없음, 무기력함) 중의 1가지 이상을 경험하였다. 우울은 한국어 능력, 사회심리적 요인, 문화적응과 가족생활 스트레스 등과 관련이 있었다. Kim (2007)의 연구에서는 낮은 한국어 능력, 미래에 대한 낮은 기대, 낮은 사회적 지지와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을 증가시켰다. 추가적으로 Yang과 Kim (2007)의 연구에서는 결혼기간이 길수록,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 가족생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들이 높은 우울 수치를 보였다. 또한 출신국가별로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베트남 여성들의 경우, 문화 정체성이 강할수록 우울 증상을 경험한 반면, 일본이나 중국 여성들에서는 문화 정체성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Cha & Kim, 2008). 한편 집단미술치료는 필리핀 이주여성의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Shin, 2006).

여성결혼이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가족들 간의 관계와 생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으며(Na, 2008), 집단미술치료 중재 후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감소하였다(Kwon & Chung, 2009; Lee & Kim, 2008; Shin, 2006). 가족생활 스트레스는 신뢰할만한 상담 대상이 없거나 시부모와의 갈등을 겪거나 동료나 친구를 만나는 것에 대해 가족이 싫어하는

경우 높게 느꼈으며(Park, 2009), 여성결혼이주자의 낮은 결혼만족도, 높은 자녀 연령, 소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eo, Kim, & Kim, 2008). 중재연구로는 집단미술치료가 여성결혼이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연구가 3편 있었다. Shin (2006)은 한 이주여성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 이주여성 7명을 대상으로 약 4개월에 걸쳐 16회의 치료모임을 가진 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Lee와 Kim (2008)은 한글학교에서 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 9명을 대상으로 매주 1회씩 20회의 미술치료모임을 가진 후 집단미술치료가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와 결혼 만족도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Kwon과 Chung (2009)은 한국어 교실에서 각각 8명의 중국과 베트남 국적 여성들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를 제공한 결과 실험집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평균점수는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자아 존중감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2) 건강 행위

건강행위를 주로 다룬 3편의 논문을 포함하여 총 6편의 연구는 흡연, 음주, 운동, 스트레스, 수면, 피임 등 외국인 이주자의 건강증진 행위를 보고하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음주율은 37.6-39.8%, 흡연률은 27.8-39.2% (Jung et al., 2008; Kim, 2009), 운동을 주 1-3회 이상 하는 비율은 41.9%에 달하였다(Jung et al., 2008). 여성결혼이주자의 경우, 운동, 스트레스관리, 식습관이 비교적 낮은 건강증진 영역으로 파악되었으며, 피임 실천률이 65%였고, 18%의 여성들이 인공유산을 경험하였다(Kim, Kim, & Kwon, 2008).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이 10%였으며, 암 검진률은 암의 종류에 따라 33.3-66.7%에 달하였다(Ahn, 2008b). 여성결혼이주자의 국내의료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언어장벽, 경제적 부담, 불충분한 진료시간, 병원이용 절차의 복잡함, 병원이용에 대한 안내나 조언을 해 줄 동료 집단의 지지부족 등을 경험하였다(Koh & Koh, 2009). Ahn (2008a)은 농촌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총 8회에 걸쳐 건강교육과 자아 존중감 및 자아 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은 참여하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자아 효능감이 크게 향상되었다. 한

편 건강 행위에 대한 지식과 자아 존중감은 중재 후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IV. 논의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국내거주 외국인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련 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외국인 이주자의 건강관련 연구의 실태와 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검토에 포함된 논문은 대다수가 최근 2008-2009년 안에 보고되어, 이는 우리 나라의 외국인 인구의 변화와 외국인 인구집단을 위한 보건정책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을 위한 각종 지원은 초기에 민간단체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다가 2003년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정부부처가 본격적으로 외국인의 문화적응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Jo, 2009).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결혼이주자를 위한 보건소의 맞춤형 건강관리사업과 통역서비스 제공, 여성부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한 의료, 복지, 언어 등 다방면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Jo, 2009). 외국인 이주자는 다양한 학문영역을 포함하는 다학제간 접근이 요구되는 인구집단인데(IOM, 2010), 본 연구에서 검토한 논문 중 3편만이 서로 다른 학문영역의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들 소수 계층 집단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련 연구에 다학제간 접근이 보다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검토한 논문의 연구장소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의 약 65%는 경인 지역에 거주하므로 예상했던 대로 이 지역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한편 결혼이주자의 경우 경인지역을 제외하고 경상지역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MOJ, 2010), 본 연구에서 검토된 논문들에서는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이 포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국민건강 영양조사나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같은 전국규모의 조사에서는 국내거주 이주자를 확인하는 정보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이들 집단의 지역별 건강수준과 행태에 대한 실태 파악은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련 연구는 지역별 편중을 보이고 있으므로, 전국 규모의 일차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 지역별 우선건강문제가 지역건강목표 설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검토대상 연구 중 중재 연구는 총 4편으로 모두 유사실험연구설계를 이용하였다. 하지만 연구 설계에서 작은 표본수, 편의 표출방법, 사전조사 부재 등으로 인해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요구되며(Polit & Hungler, 1995), 보다 타당한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하여 이러한 제한점들은 추후 연구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실험군 효과평가 시에, 대조군의 사전조사가 없었을 때에는 집단간 비교와 함께 실험군 자체의 변화도 조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겠다.

연구대상의 특성상 이주자는 취약계층 집단으로 분류되어 연구 윤리 측면에서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검토대상 논문 중 약 10편의 논문에서만 사전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고되었고, 공식적인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대해서는 어느 연구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주자 대상의 연구시, 연구자들에게는 대상자들의 문화적 고려사항의 이해 및 윤리적 처치제공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자원확보를 권고하였다(Birman, 2005). 예를 들어 연구동의 과정 절차시 이주자의 언어로 번역된 동의서를 사용하며, 연구동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주자의 불리한 조건으로 인하여 자발적인 연구참여가 훼손되었거나 연구의 결과가 영향 받을 수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그밖에 연구 대상자들에게 유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연구자들의 윤리적인 의무라 할 수 있겠다(Dressler, 1992).

또한 절반가량의 논문(13편)에서는 대상자의 모국어로 연구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나 3편 만이 역번역과 같은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연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타 문화권에서 살거나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번역이 필수적일 뿐 아니라 연구의 타당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순한 언어 대치의 수준을 넘어, 원도구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타 문화권과 언어권의 대상자들에게도 적절한지, 즉 개념적 및 조작적 정의가 문화권간에 일맥상통하는지 혹시 추가하거나 수정하여야 할 문항들은 없는지에 대한 결정도 번역 과정에 속한다고 하겠다. 다양한 번역 방법의 장단점과 번역된 도구의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이나 권고(Brislin, 1986; Jones & Kay, 1992)를 따라 도구의 준비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과 호주에서 수행된 건강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이주자와 자국민의 비교, 이주자와 자국에서 출생한 인종/민족과 비교, 이주자와 출신국민과의 비교, 이주자의 인종/민족간 비교를 시도한 연구가 많았으며(Anikeeva et al., 2010; Cunningham et al., 2008; Derose et al., 2009; Uiters, Deville, Foets, Spreeuwenberg, & Groenewegen, 2009), 이를 통해 이주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서비스의 불균형과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편 국내 연구에서는 이주자의 주요 건강문제만을 조사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출신국에 따른 여성 결혼이주자의 우울증상 비교(Cha & Kim, 2008)와 이차분석을 통해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비교한 것(Song et al., 2008)이 유일하였다. 또한 국외 연구에서는 국가의 주요 건강관리지표가 되는 비만, 심혈관계질환,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영역에 초점을 둔 반면(Anikeeva et al., 2010; Cunningham et al., 2008), 국내 연구에서는 감기, 위장장애 등과 같이 빈번한 급성질환에 대한 조사가 주로 이루어졌다(Jo, 2008; Kim, 2009). 점차 증가하는 이주자의 인구와 이주로 인한 건강문제의 영향을 고려할 때 이들의 만성질환 예방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만성질환 유병 정도와 건강행태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 집단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020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0)에서 주요 인구집단 중의 하나로 제시된 만큼, 한국인들과의 건강불균형에 대한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중재전략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주자들은 이주초기에는 고국에서의 더 나은 생활습관과 이민 수속과정에서의 선별 등에 영향을 받아 이민국 국민보다 건강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건강한 이주자 현상으로 인해 이주국 국민보다 더 높은 건강 상태를 나타내었다가, 점차 이주국 국민과 유사하게 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Anikeeva et al., 2010; Cunningham et al., 2008). 이는 이주지의 환경, 질병 위험요인, 식습관 등에 노출되면서 이주국 국민의 행위를 따라가게 되는 문화적응의 결과로 해석된다(Anikeeva et al., 2010). 이와 같이 이주자의 건강은 이주지에서의 체제기간과 문화적응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나, 본 연구에서 검토된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과를 평가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주과정에 따른 문화적응 정도와 이에 따른 건강자원의 활용과 건강행위와 건강상태의 변화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여성결혼이주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결혼이주자들 각개인의 문화정체성보다는 그들이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인지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여성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한국어 수준, 한국 거주기간 등의 인구사회학적인 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Na, 2008), 외국인 대상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시 이러한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생활, 양육, 가족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그들의 정신건강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Na, 2008) 다양한 스트레스 영역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다. 문화적응의 개념은 인류학자들의 근간이 된 개념이었다가, 1960년대 역학에서 관심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Hunt, Schneider, & Comer, 2004), Medline에서 문화적응을 주요어로 검색된 연구가 1960년 이후 40년간 약 2,100개였는데, 2000년 이후 불과 10년간 무려 2,600개 이상의 논문이 추가된 것을 볼 때 건강관련 연구에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하게 다문화사회에 돌입했으나 아직 이러한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문화적응과 건강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실증적인 근거는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여성결혼이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Kim, 2007), 유학생(Na, 2006)과 여성결혼이주자(Na, 2008)의 생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매우 제한적인 연구에서만 문화 적응을 이주자 건강상태와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개인의 행위 선택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식, 태도와 신념에 의해 결정되므로(Dressler, 1992), 국내 이주자의 건강패러다임에서 문화적응은 주요 개념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결혼이주자의 건강행위의 이행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운동 및 질병 관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건교육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결혼이주자의 경우 피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피임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지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주자에게 피임을 포함한 산전/산후교육, 임신/출산, 영유아 건강에 관한 건강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더불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여성결혼이주자들이 국내 의료 서

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위에서 발견된 부정적인 어려움을 더욱 심각하게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적 역량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의 가치, 태도와 신념을 존중하며 건강교육 및 증진 프로그램 시행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건강교육 및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권고되었다(Vaughn, 2008). 따라서 외국인에게 실제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 일선의 지역사회기관의 건강관리 제공자들의 문화적 역량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대상 논문의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문헌고찰에 사용된 연구대상 관련 검색어는 '외국인', '이민자', '이주자' 외에도 국내 외국인의 대표적인 집단인 '결혼 이민자'와 '이주 근로자'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외국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주요어가 이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는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동향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2010년에 그 전년도까지 출판된 논문을 대상으로 수행한 것이므로, 2000-2009년까지의 연구동향으로 범위를 국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문헌고찰 연구에 포함된 논문은 Cooper (1998)의 문헌고찰 논문 선정 분류 중 선택적 문헌 고찰(exhaustive review with selective citation) 방법으로, 제한된 연구기간 동안 연구 수행이 가능하고 고찰대상 논문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전문가 심사를 통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의 해석시 정부기관의 보고서와 같은 타 문헌들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의 대부분은 일반적인 건강상태 또는 신체적 건강상태를 연구주제로 한 반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논문의 경우 주로 정신건강문제를 다루었고 의료시설 이용을 포함한 건강행위를 파악하는 목적의 연구가 다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어떠한 중재 연구나 질적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검색된 논문의 수가 제한적이고, 연구 주제 영역과 측정도구가 다양하여 두 집단별 비교가 어려우므로 집단별 우선 건강문제 파악과 효과적인 중재전략 모색을 위한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두 집단을 비교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우리나라에 새롭게 대두된 외국인 이주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련 연구는 주로 이주자의 건강상태와 건강행위에 대한 특성과 건강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조사연구였고 중재연구는 작은 표본수의 예비 연구수준의 유사실험연구로 진행되었다. 이주자의 거주 지역별, 국적별 취약성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는 다소 부족하여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또한 이주자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만큼 연구과정에서의 대상자 보호절차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약한 것으로 보여 연구자들의 재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한된 연구결과이기는 하나, 본 연구결과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주요 신체적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주과정 동안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인 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건

강행위를 파악함으로써 추후 연구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국내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련 연구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이주자집단의 우선건강문제가 지역건강목표 설정에 반영되도록, 지역별 건강 수준과 행태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주자와 한국인과의 건강불균형 부분과 관련요인의 차이가 일차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주과정에 따른 문화적응 정도와 이에 따른 의료기관, 건강교육자료와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같은 건강자원의 활용과 건강행위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결과적으로 이주과정이 건강상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외국인에게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기관의 건강관리 제공자들의 문화적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이들 집단의 문화적 역량 수준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3> Components of studies examining immigrant health

Author (Year)	Purpose	Research design	Sample			Sampling method		Data collection	Ethical consideration	
			Setting	Size (Gender)	Age (Range)	Nationality	Migrant status			Method
Ahn (2008a)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and 8-session health education program to promote the health of married immigrant women.	Experimental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osttest only design)	W city	36 17/19 (F)	31/30	China, Japan, Uzbekistan, Vietnam, Mongol	Marriage	Convenient sampling	Self-report + Interview	
Ahn (2008b)	To assess the health status and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of im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s.	Non-experimental (Descriptive)	W city	50 (F)	33	Vietnam, Philippine, China, Japan	Marriage	Convenient Sampling	Interview	Yes
Cha et al. (2008)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depression level of Japanese, Chinese and Vietnamese wives who are residing in Korean society.	Non-experimental (Correlative) Secondary analysis		524 (F)	31	Japan, China, Vietnam	Marriage	Snowball sampling	Self-report + Interview	
Chung et al. (2009)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acculturative stress and mental health (psychological well-being)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Non-experimental (Correlative) Secondary analysis	Gyeonggi province	1013 (F=80%)	Female 33, Male 40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Han, Japan, Vietnam, Philippine, Mongol, Thailand	Marriage	Systematic sampling	Self-report + Interview	
Jo (2008)	To identify foreign worker's health problem.	Non-experimental (Descriptive)	Gyeonggi province	200 (F= 8%)	20-49	Bangladesh, Nepal, Philippine	Work	Convenient sampling	Self-report + Interview	
Jo et al. (2009)	To investigate the musculoskeletal symptoms of migrant workers.	Non-experimental (Correlative)	Gyeonggi province	502 (F=21.5%)	>40: 39.8%	China, Sri Lanka, Bangladesh, Myanmar, Pakistan et al.	Work	Convenient sampling	Self-report	
Jung et al. (2008)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gender related to health status, occupational environm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hazardous chemicals use of migrant workers in Korea.	Non-experimental (Descriptive)	Seoul, Gyeonggi & Chungcheong g province	413 (F= 33.7%)	32	China, Bangladesh, Philippine et al.	Work	Convenient sampling	Self-report + Interview	
Kim (2008)	To understand spousal support, demand for health education, and quality of life for married female immigrants.	Non-experimental (Descriptive)	Jeolla province	102 (F)	32	Philippine, China, Vietnam, Japan, Taiwan, Ghana	Marriage	Convenient sampling	Self-report + Interview	Yes

Author (Year)	Purpose	Research design		Sample			Sampling method		Data collection	
		Setting	Size (Gender)	Age (Range)	Nationality	Migrant status	Method	Ethical consideration		
Kim et al. (2008)	To examine the acculturative stress of foreign migrant workers in Daejeon, Korea.	Chungcheong g province	135 (F)	29 (22-36)	Indonesia, Nepal, China, Philippine, Uzbekistan et al.	Work	Convenient sampling	Self-report	Yes	
Kim et al. (2008)	To identify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contracept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Chungcheong g province	73 (F)	30	Vietnam, China, Philippine, Japan, Cambodia, Thailand	Marriage	Convenient sampling	Self-report + Interview	Yes	
Kim et al. (2008)	To survey prenatal education needs and correlation between health belief and prenatal care compliance of intermarriage foreign wives.	D city, G city	50 (F)	28	China/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Philippine, Vietnam, Japan	Marriage	Convenient sampling	Self-report + Interview	Yes	
Kim (2007)	To find the differences in the mental health (PRSD-Post Trauma Syndrome Disorder and depression) of immigrant women living in rural communities in Korea.	C & J province	153 (F)		Philippine, Vietnam, Thailand, China	Marriage	Convenient sampling	Self-report + Interview		
Kim (2009)	To promote the mental and physical efficiencies of the foreign workers working in our country through the promotion of their health, and provide help in their effective use of medical treatments	Gyeongsang province	231 (F=23.8%)	(25-45)	Vietnam, Indonesia, Uzbekistan, China, Philippine et al.	Work	Convenient sampling	Self-report		
Koh et al. (2009)	To describe married female migrant' experiences of health care services	Seoul city	15 (F)	29 (22-36)	Vietnam, China, Cambodia, Sri Lanka, Philippine	Marriage	Convenient sampling	Interview	Yes	

Author (Year)	Purpose	Research design		Sample			Sampling method		Data collection	
		Setting	Size (Gender)	Age (Range)	Nationality	Migrant status	Method	Ethical consideration		
Kweon et al. (2007)	To look into the factors that affect on their mental health	Jeolla province	150 (F)	33	Philippine, Vietnam, China, Japan, Thailand, Mongol	Marriage	Convenient sampling	Self-report + Interview	Yes	
Kwon et al. (2009)	To find out how group art therapy can have an effect on reducing married migrant women's acculturative stress and increasing their self-esteem.	Gyeonggi province	168 (F)		China, Vietnam	Marriage	Convenient sampling	Self-report + Interview		
Lee et al. (2009)	To investigate health problems of migrant workers in Korea.	Gyeonggi province	2233 (F= 42.5%)	40	China, Russia, Bangladesh, Philippine, Mongol, Nigeria et al.	Work	Convenient sampling			
Lee et al. (2008)	To investigate if and to what degree group art therapy can help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s cope with their cultural stress and increase their marital satisfaction	S city	8 (F)	24	Vietnam	Marriage	Convenient sampling	Self-report	Yes	
Lee et al. (2009)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social support and loneliness and to examine of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loneliness in migrant workers.	Seoul city & Gyeonggi province	130 (F=68.5%)	46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Indonesia, Vietnam, Philippine, Mongol et al.	Work	Convenient sampling	Self-report + Interview	Yes	
Lim (2007)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tressor, stress symptoms and deviant behavior.	A & S city	203 (F=36.9%)	20s,30s: 87%	China(71%) et al.	Work	Snowball sampling	Self-report + Interview		
Na (2006)	To understand the acculturative stress and life stress among foreign students in Korea.	Chungcheong g province	275 (61%)	23	China, Mongol, Japan, Philippine, Pakistan, Indonesia	Study	Convenient sampling	Self-report		

Author (Year)	Purpose	Research design	Sample			Sampling method		Data collection		
			Setting	Size (Gender)	Age (Range)	Nationality	Migrant status		Method	Ethical consideration
Na (2008)	To understand the foreign immigrant women by marriage in Korea, and to provide them with women alternatives in the respect of social welfare.	Non-experimental (Correlative)	Gyeonggi & Chungcheong g province	145 (F)	25	Philippine, Thailand, Vietnam, China, Indonesia	Marriage	Convenient sampling	Self-report	
Park (2009)	To investigate the level of family stress and impact of social support on family stress.	Non-experimental (Correlative) Secondary analysis	Gyeonggi province	810 (F)	33	China, Japan, Vietnam, Philippine, Mongol, Thailand	Marriage	Systematic sampling	Self-report + Interview	
Seo et al. (2008)	To examine the factors impacting parenting-related stress levels using data from 69 individual Vietnamese women who married a Korean man.	Non-experimental (Correlative)	The whole country	69 (F)	40	Vietnam	Marriage	Convenient sampling	Self-report	
Shin (2006)	To investigate the a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the acculturation stress and depression of migrant Philippines.	Experimental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Jeolla province	7 (F)	35	Philippine	Marriage	Convenient sampling	Self-report	
Song et al. (2008)	To investigate the general health status and severity of exposure to hazardous agents - with a focus on heavy metals - of migrant workers.	Non-experimental (Descriptive) Secondary analysis	Seoul city & Gyeonggi province	19,616 (F= 10.6%)	30	Not described	Work	Complete survey		
Yang et al. (2007)	To analyze the various factors influencing on depressive feelings among foreign wives through marriage migration.	Non-experimental (Correlative)	Seoul city	304 (F)	31	China, Japan, Philippine, Vietnam, Thailand, Mongol et al.	Marriage	Snowball sampling	Self-report	
Yi et al. (2009)	To investigate the role of social support for job satisfaction of migrant workers.	Non-experimental (Correlative)	Seoul city, Gyeonggi & Chungcheong province	397 (F= 33.2%)	<30 46.9%	China, Sri Lanka, Bangladesh, Philippine et al.	Work	Convenient sampling	Self-report + Interview	Yes

참고문헌

- *Ahn, Y. H. (2008a). Development and testing of a health education program for im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2(2), 200-210.
- *Ahn, Y. H. (2008b). Health status and health behavior of im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2(1), 18-26.
- Anikeeva, O., Bi, P., Hiller, J. E., Ryan, P., Roder, D., & Han, G. (2010). The health status of migrants in Australia: A review. *Asia-Pacific Journal of Public Health*, 22(2), 159-193.
- Birman, D.(2005). *Ethical issues in research with immigrants and refugees*. In J.E. Trimble & C.B. Fisher (Eds.), *Handbook of ethical research with ethnocultural populations and communities*(pp.155-176). New York: Sage.
- Brislin, R. W. (1986). *The wording and translation of research instruments*. In W. J. Lonner & J. W. Berry (Eds.), *Field methods in cross-cultural research*(pp. 136-164). Newbury Park, CA: Sage.
- *Cha, S. E., & Kim, D. S. (2008). The effect of social roles on depression of foreign wives in Korea: focused on the difference among Japanese, Chinese and Vietnamese wives. *The Journal of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31(3), 131-157.
- *Chung, K. S., & Han, J. S. (2009). Acculturative stress and mental health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2(2), 87-114.
- Cooper, H. M. (1988). Organizing knowledge synthesis: A taxonomy of literature reviews. *Knowledge in Society*, 1, 104-126
- Cunningham, S. A., Ruben, J. D., & Narayan, K.M. V. (2008). Health of foreign-born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 review. *Health & People*, 14, 623-635.
- Derose, K. P., Bahney, B. W., Lurie, N., & Escarce, J. J. (2009). Immigrants and health care access, quality, and cost. *Medical Care Research and Review*, 66(4), 355-408.
- Dressler, W. W. (1992). *Access issues and points of entry*. In D. M. Becker, D. R. Hill, J. S., Jackson, D. M., Levine, F. A. Stillman, & S. M. Weiss(Eds.), *Health behavior research in minority populations*(pp. 73-74). Bethesda, MD: NIH Publication.
- Footracer, K. G. (2009). Immigrant health care in the United States: What ails our system?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hysician Assistant* , 22(4), 33-36.
- Gambescia, S., Woodhouse, L., Auld, M., Green, B., Quinn, S., & Airhihenbuwa, C. (2006). Framing a transdisciplinary research agenda in health education to address health disparities and social inequalities: a road map for SOPHE action. *Health Education & Behavior*, 33(4), 532-537.
- Hunt, L. M., Schneider, S., & Comer, B. (2004). Should "acculturation" be a variable in health research? A critical review of research on US Hispanics. *Social Science & Medicine*, 59, 973-986.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0). *Facts & Figures*. Retrieved June 30, 2010, from <http://iom.int/jahia/Jahia/about-migration/facts-and-figures/lang/en>
- *Jo, H. T. (2008). A study of actual conditions of the health for the foreign worker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17(2), 224-229.
- *Jo, M. H., Kim, K. S., Lee, S. W., Kim, T. G., Ryu, H. W., Lee, M. Y., et al.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musculoskeletal symptoms in migrant worker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1(4), 378-387.
- Jo, S. S. (2009). *The actual conditions and search for alternatives of cultural adaption education for migrant workers: An analysis and critique*. Seoul, Korea: Kang-Hyun.
- Jones, E. G., & Kay, M. (1992). Instrumentation in Cross-Cultural Research. *Nursing Research*, 41(3), 186-188.
- *Jung, H. S., Kim, Y. K., Kim, H. L., Yi, G. M., Song, Y. E., Kim, J. H., et al. (2008). The health status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gender of migrant worker in Korea.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17(2), 126-137.
- *Kim, H. J. (2008). A study of spousal support, the demand for health education, and quality of life for married female immigra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4(1), 5-11.
- *Kim, H. M., & Kim, S. H. (2008). Acculturative stress of foreign migrant workers and contributing factors: examining the role of social support.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30, 78-100.
- *Kim, M. J., Kim, T. I., & Kwon, Y. J. (2008). A study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contracept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4(4), 323-332.
- *Kim, M. Y., & Koh, H. J. (2008). A study about intermarriage foreign wives' prenatal education needs, health belief and prenatal care compliance. *Keimyung Journal of Nursing Science*, 12(1), 83-96.
- *Kim, O. N. (2007). Mental health of immigrant women in rural communities: focusing on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2(3), 47-73.
- Kim, S. D. (2009). The effect common health disorders of foreign workers -focused on Daegu and Kyungpook region-. *Journal of Digital Contents*, 9(9), 268-277.
- *Koh, C. K., & Koh, S. K. (2009). Married female migrants' experiences of health care servic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1), 89-99.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0). *Report on public hearing for planning health plan 2020*. Retrieved March 2, 2011, from <http://www.kihasa.re.kr/html/jsp/>
- *Kweon, G. Y., & Park, K. W. (2007). A study on influence factors

- to the mental health of foreign wives. *Korean Journal of Social Issues*, 14(2), 187-219.
- *Kwon, Y. K., & Chung, Y. J. (2009).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acculturative stress and self-esteem of married migrant wome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16(2), 173-191.
- *Lee, H. Y., Sr. Stephanian, Cho, Y. I., Choi, E. Y., Park, J. A., & Park, Y. M. (2009). Health status of migrant workers in Korea.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18(1), 5-13.
- *Lee, M. S., & Kim, G. S. (2008).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for marriage, immigrants' cultural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4), 123-143.
- *Lee, S. H., Kim, S. J., Lee, Y. J., & Kim, S. Y. (2009).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loneliness in migrant work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1), 67-74.
- *Lim, Y. K. (2007). A study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tressor, stress symptoms, deviant behavior to foreign laborer in Korea.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s*, 26(2), 185-207.
- Lowe, J., & Archibald, C. (2009). Cultural diversity: The intention of nursing. *Nursing Forum*, 44(1), 11-18.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 2011 Family health service. Seoul, Korea: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Ministry of Justice. (2010). *Korea immigration service annual statistics*. Retrieved January 30, 2010, from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56
- Ministry of Justice. (2011). The First Basic Plan for Immigration Policy (2008-2012): 2011 action plan 2. Seoul, Korea: Ministry of Justice.
- *Na, I. S. (2006). A study on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life stress among foreign students. *Korean Non-Profit Organization Review*, 5(2), 159-197.
- *Na, I. S. (2008). Affecting factors on the stress among foreign immigrant women by marriage in Korea. *Korean Non-Profit Organization Review*, 7(1), 97-135.
- *Park, C. K. (2009). Analysis of the effect of family stress and social support among International Married Woman Migrants in Gyeonggi-do Province. *Proceedings of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Conference*, 1, 137-154
- Polit DF, Hungler BP. *Nursing Research: Principles and Methods*. Philadelphia, PA: Lippincott, 1995. pp. 168-170.
- *Seo, H. L., Kim, K. E., & Kim, Y. H. (2008). A study of the factors impacting parenting stress of married Vietnamese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3(3), 121-143
- *Shin, M. J. (2006).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the acculturation stress and depression of migrant workers' Philippines. *The Korean Journal of Arts Therapy*, 6(2), 21-39
- *Song, Y. H., Kim, K. S., Lee, S. W., & Choi, S. H. (2008). The health status including biologic exposure indices of migrant workers: based on 2005 special health examination data.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Environmental Medicine*, 20(2), 63-73.
- Uiters, E., Deville, W., Foets, M., Spreeuwenberg, P., & Groenewegen, P. P. (2009). Differences between immigrant and non-immigrant groups in the use of primary medical care; a systemic review.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9(76), doi:10.1186/1472-6963/9/76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Overcoming migrants' barriers to health*. Retrieved January 30, 2010, from <http://www.who.int/bulletin/volumes/86/8/08-020808/en/index.html>
- *Yang, O. K., & Kim, Y. S. (2007). A study on the effects of depressiveness among foreign wives through marriage migration.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26, 79-110.
- *Yi, G. M., Jung, H. S., Yi, Y. J., Hyun, H. J., & Kim, H. G. (2009).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job satisfaction of migrant worker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18(2), 165-173.

References marked with an asterisk indicate studies in the review articles.